KJE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한일경제협회 소식

Vol.8 · 2006년 2월 8일 수요일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향하여 25th 1981~2006

135-821 서울 강남구 논현2동 112-15번지 4층 · (T) 02-3014-9888 · (F) 02-3014-9899 · http://www.kjc.or.kr · http://www.kjmeeting.or.kr

제38회 한일 · 일한경제인회의가 일본 삿포로시에서...

매년 한일 양국의 경제계인사가 참석하여 양국의 경제협력방안 등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가 **오는 2006년 5월 25일(목)~27일(토)까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르네상스삿포로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단장단 일행은 회의 개최 전날인 5월 24일(수) 동경에서 일본 주요기관 예방이 예정되어 있음)

금번 회의는 최근의 정치, 사회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인해 경색된 한일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일 양국 재계인사의 회합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극복해야할 양국간의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협력방안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21세기 메가트랜드 변화와 한일 역할 등 향후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경제인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난 1월 17일(화)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 주재로 경제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의 테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 일　　시 : 2006년　5월 25일(목) ~ 5월 27일(토)
● 장　　소 : 일본국 홋카이도 삿포로시 (르네상스삿포로HOTEL)
● 규　　모 : 한일 양국 경제계대표 300여명 [단장 : 조석래(趙錫來) 회장((주)효성 회장)]
● 주　　제 : 『동아시아공동체와 한일이니시어티브』(가제)
　◈ 제1·2분과회 : 『21세기 Megatrends의 변화와 한일 역할』
　　□ 한국과 일본이 바라보는 미래의 10년
　　□ 새로운 21세기의 한일 관계
　　□ 한일 공동과제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기업전략과 대응
　◈ 전체회의
　　□ 홋카이도(北海道)경제와 한국과의 교류
　　□ 아시아 인적·문화교류
　　□ 역내 관광산업의 개발
　※ 상기 테마는 협의 중에 있으며,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
● 문 의 처 : 사무국 차장 김정호 Tel. 02-3014-9866　E-mail : jhkim@kjc.or.kr

2월에 열리는 한일경제협회 행사들

제6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파견

- 일 자 : 2006. 2. 9(목) ~ 2. 13(월)
- 장 소 : 일본 동경 (신코우(新光)증권 하네다 연수센터)
- 규 모 : 한일 양국 고교생 100여명
- 내 용 : 비즈니스 기획 (마케팅, 재무, 아이템 시장조사, 판촉홍보물 제작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발표회, 경제인과의 대화, 문화 체험 등

2006년도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 일 시 : 2006. 2. 9(목) 11:30
- 장 소 : 신라호텔 23층 에뜨와르
- 규 모 : 협회 고문·회장단
- 부의안건
  - 2005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안)의 건
  - 2006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의 건
  - 상근임원 임면승인의 건 및 제25회 정기총회 개최의 건

제25회 한일경제협회 정기총회 개최

- 일 시 : 2006. 2. 20(월) 11:00
- 장 소 : 신라호텔 영빈관 2층 에메랄드
- 규 모 : 협회 회원사
- 부의안건
  - 2005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안)의 건
  - 2006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의 건
  - 임원 선임 및 기타사항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의 업무협의 개최

- 일 시 : 2006. 2. 17(금) 15: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규 모 : 한국측 :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 등 4명
  일본측 : JETRO동경본부 하야시 과장 등 4명
- 내 용 : 2006년도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협의

한일 주요인사 간담회

- 일 시 : 2006. 2. 22(수) 18:30
- 장 소 : 東京 紀尾井町
- 규 모 : 한국측 : 조석래(趙錫來)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3명
  일본측 : 瀨戶 雄三(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2명

「한일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미래로의 선언 -

지난 12월 27일 한일우정의 해 마무리 행사인「한일 청소년 대화의 광장」이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100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학생들이「LOOK KOREA (한국에게 배운다) , LOOK JAPAN (일본에게 배운다)」를 주제로「사회, 환경, 인간관계」,「교육」,「평화, 국제관계」,「경제, 산업」,「문화, 미디어」의 5개의 테마별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하여 상대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토론 결과는 '미래로의 선언'으로 채택되어 양국 정부대표(한국측 : 이규형(李揆亨) 외교통상부 차관, 일본측 :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에게 각각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측 선언문]

보다 나은 한국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화합하여 국제 사회의 주역이 되자.
2.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자.
3. 명목뿐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4.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중소기업의 전문성을 살려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5. 일본의 적극적인 문화포용 자세를 배워 한국적인 문화 콘텐츠를 창조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자.

[일본측 선언문]

보다 나은 일본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국제 사회의 서로 다른 문화, 역사,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을 재인식하여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양성하자.
2.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발신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자.
3. 과거의 역사를 응시하고 현실을 직시하자. 자신의 나라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적극적인 외교를 지향하자.
4. 해외 기술자가 쾌적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기술특구'를 설치하자.
5. 자국의 문화를 소중히 하는 자세를 다른 나라에 어필하고, 또한 다른 나라로부터 열성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자.

※ 발표 내용 및 수상 내역 등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jkcf.or.jp/friendship2005/korean

日本은 지금...

黃金의 3年에 突入한 日本經濟의 빛(光)과 그림자(影)

버블 붕괴 이후, 이런 평온한 기분으로 맞이한 年末年始가 있었을까? 2002년 1월부터 시작한 이번의 경기확대는 2005년 12월로 48개월에 이르러 戰後로 최고 길었던 <이자나기 好況(1965년부터 1970년에 이루는 景氣 好況=57개월)>에 버금간다.

주식시장은 가히 최고조라 할 수 있다. 2005년 후반에 15,000엔대까지 회복한 日經平均 株價는 1989년 12월의 피크 때의 40% 수준이지만, 東證(동경증권거래소) 1部의 時價總額은 500조엔을 돌파하여 피크 때의 80% 까지 회복했다. 또한 도심의 地價도 거의 바닥을 쳤다고 보여져 분명히 디플레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염려스러운 것은, 2007년부터 시작하는 단카이 세대(團塊世代 : 1947년~1949년경의 제1차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의 퇴장에 의해 본격적인 고령화사회가 막을 여는 것이지만, 단카이 세대의 퇴장은 당장은 인건비 감소에 의한 기업수익의 상승효과로서 나타나는 것 외에 그들의 왕성한 구매의욕에 의한 소비시장의 확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럭저럭 적어도 앞으로 3년(2006~2008년)은 극단적으로 어두운 미래는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버블 붕괴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회복한 일본경제는 <황금의 3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들떠 있을 수만은 없다. 말할 것도 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계층이 경기 회복의 은혜를 받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의 동향에 명암(明暗)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런 명암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異質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효율을 올릴까 라고 하는 新自由主義 하에서 빈부의 차가 커지고 있다>고 저널리스트인 田原 總一郎씨는 지적한다. 즉, <승자>, <패자> 라고 하는 말로 상징되어지는 경기 회복의 은혜를 받는 자와 전혀 받지 못하는 자로의 양극화, 바꿔 말하자면 <格差>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생기고 있는 것이다.

작가인 高村씨는 바야흐로 일본 경제의 새로운 견인역이고, 리더 세대인 승자 IT기업의 젊은 경영자에 대해 <사회를 리드하는 회사로서 사회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의 思考를 하지 않는다>고 苦言을 하고 있다.

<그들만이 벌어서 "힐즈(록번기 힐즈)족"이 되는 한편, 승자 산업과는 무관한 대량의 저소득층이 생겨 그들은 록번기 힐즈(젊은층의 신흥 부자촌)의 주변에 貧民家를 만들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 힐즈의 가치가 내려가 버린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어른스런 사고이다. 그러한 것은 본래 그들의 윗세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였지만…>.

게다가 현대 사회에 자리잡은 <格差>는 그것만이 아니다. 예를 들면, <세대간의 격차>는 이미 커뮤니케이션 부재의 문제만이 아니고, 연금문제 등 實利적인 면에서의 대립 구조도 생기고 있다. 그 외에, IT를 사용하는 정보의 發受信 수단을 갖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못한 자와의 <정보 자원 격차>, 삼위일체 개혁의 결과, 지방자치제의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재정 격차>,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과 아시아 각국과의 <역사 인식의 격차>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제가 상승세가 되어 강자의 발언력이 높아지는 와중에 이러한 격차의 문제는 엉뚱한 데로 몰아 갈 가능성이 있다. 경제가 잘 돌고 있는 이상, 現狀을 옳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모순점을 바르게 해가는 것이 장기적이고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의 조건으로 볼 것인가? "황금의 3년"을 앞에 두고 일본경제는 지금 중대한 판단을 강요받고 있다.

<2006年度 經濟 展望>

정부가 발표한 2006년도의 경제전망은 실질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측, 현재의 경기회복이 2006년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설비투자의 확대와 함께 소비가 성장지속의 기둥(축)이 된다는 진단이다.

성장률 그 자체는 민간 예측과 거의 같지만 다른 것은 9년 만에 명목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 신장을 상회하는 전망을 표명한 점. 정부 공약인 디플레 탈출을 향한 명목 성장을 중시하는 자세를 선명히 해 일본은행에게도 정책협조를 구했다.

정부 경제전망은 경제 상황을 <기업 부문의 好調가 가계 부문에 파급하여 민간 수요 주도로 완만하게 회복 중>이라고 분석했다. 실질 성장으로 1.9% 증가한 2006년도의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항목별로 나눈 기여도로 보면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內需가 80% 가까운 1.5%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도 보다 0.5% 상승하고 GDP디플레이터(Deflator/종합적인 물가동향을 나타내는 지표. (+)면 물가 상승, (-)면 물가 하락을 표시)도 (+)0.1%로 예측. <일본경제는 9년 만에 디플레로부터 탈출한다>라는 전망을 나타냈다. 經濟財政擔當相은 기자회견에서 <장기 디플레의 터널이 최후의 곳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2006년의 소비자 물가도 종합으로 +0.5%로 예측, 1998년도 이후 8년만의 상승을 예상한다.

<2006年度 國家 豫算>

일본의 2006년도의 일반회계를 前年 對比 3% 減額한 79조6천8백억엔(韓國 : 144조 8,076억원 전년대비 7%增/일본의 약18.2%)으로 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가 결정한 2006년도 경제 전망에서 물가의 총합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를 지금까지의 (-)로부터 (+)로 전환하여 명목성장률을 2.0%로 했다. 성장이 稅收를 끌어 올린 결과, 2006년도에 새롭게 발행하는 國債는 큰 폭으로 減額할 수 있어 5년만에 30조엔을 밑돈다.

2006年度 經濟 展望

구 분	對 前年度比 增減率(%)					
년 도	2004년도		2005년도(예상)		2006年度(展望)	
성장율	名目	實質	名目	實質	名目	實質
국내총생산(GDP)	0.5	1.7	1.6	2.7	2.0	1.9
민간기관 평균					1.9	2.1

2006年度 豫算案 槪要

豫算 規模(一般 會計) 796,800/4년 만에 減額 (單位:억엔)	
歲 入	歲 出
稅收 458,700 增稅와 경기회복으로 2년 연속 증가	政策 經費 463,600 사회보장비 증가를 흡수해 2년연속 감액
其他 38,300	國債 元利金 187,600 차입금이 많아 4년 연속 증가
新規國債 299,700 감액폭은 과거 최대	地方 交付稅 145,500 지방에의 세원 이양 진행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週刊 다이아몬드 2006. 1>

내가 본 일본의 힘(力)

御手洗 富士夫(미타라이 후지오 / 캐논 社長)
70세. 大分(오이타)縣 출신. 中央(츄오)大 법학과 졸업(61년), 캐논 입사. 미국 현지 법인에서 23년간 근무, 95년 社長에 취임. 2006년 5월에 日本經團連 회장에 취임 예정.

<競爭力 向上, 最後는 人間>

Q. 일본의 경쟁력은 높아진 것 입니까?

☞ 일본에 있어서 근래 15년은 苦鬪의 15년이었다. <버블 붕괴, 디플레 경제, 자본 자유화>라고 하는 3개의 구조 변화에 직면해 혼란의 와중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요구, 格鬪했다. 특히 버블 붕괴로부터 시작한 최초의 장기 불황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이 流動化하여 파견사원과 계약사원, 외국인이 기업 현장의 주류를 점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었다. 기업은 구조조정과 도산 등으로 괴롭고 어려웠지만 겨우 활력을 갖기 시작했다. 자본 자유화와 디플레로 펀드 등의 외국 자본이 유입, 특히 금융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공적 자금의 투입과 제로 금리의 강력한 서포트도 있었지만, 금융계의 도태가 진행하여 금융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게 된 것이 일본 부활의 토대가 되었다.

Q. 정부의 본질도 변화해 왔습니다만...

☞ 변화에 대응하는 점에서 小泉(고이즈미) 내각이었던 것은 하나의 구세주였다. 55年體制의 이익 분배형 정치를 뜯어 고쳐 투명성을 높여 정부의 비생산적인 부분을 활성화했다. 戰後, 민간의 힘이 없을 때에 일본은 성벽을 굳게 하여 국가가 산업을 지켜왔다. 그 구조는 어느 시기는 가능했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을 태만히 하여 반대로 발전을 방해했다. 이전 글로벌제이션으로 말하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성벽을 제거하는 것이 글로벌제이션이다. 舊來의 비효율적인 구조는 붕괴되고 또한 붕괴시키고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이야말로 다음이 飛躍이 있다.

Q. 글로벌제이션의 표준은 미국,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글로벌제이션에 필요한 것은 경쟁 원리가 작용한 공정한 사회이다.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美國流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전통·문화·행동 양식을 전제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美國流의 기업 통치(Corporate Governance)를 받아들인 "委員會等 設置會社"에서 업적이 好調인 것은 HOYA 등에 한정되어 있다. 재무 등 과학적인 수법에서는 세계 표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人事는 어디까지나 로컬(Local)인 것이다. 사원을 중시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Q. 일본은 완전히 회복한 것입니까?

☞ 최근의 경기 好調로 완전 회복되었다 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소비는 아직 조금 부족하고 금리를 인상할 때까지는 아직 오지 않아, 병상에서 갓 일어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회복의 입구에 있다고 보고 있다. 역시 고용이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이 2.5~3.5%가 되어야 한다. 아직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Q. 家電 등 불황을 탈출(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업계도 있습니다만...

☞ 일본 전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캐논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조(물건 만들기)의 재구축이다. 싼 외국제품에 대항하여 세계와 경쟁하기 위하여 철저한 합리화와 고부가가치 제품의 재강화라고 하는 2개의 과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다. 생산현장에서의 인간과 로봇의 융합과 인터넷을

사용한 세계적인 조달 시스템의 구축, 연구 개발 체제의 더 한층 강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국가의 정책도 향후를 좌우한다. 미국은 1980년대에 제2차 산업의 재건에 힘을 쏟아 부어 1990년대에 果實을 손에 넣었다. 일본은 버블에 빠져 온갖 고생을 경험했다. 1990년대의 美日의 차이는 1980년대에 구축한 산업 기반의 차이이다. 경영의 차이와 사외 중역의 차이가 아니다.

Q. 지금부터 일본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 최후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 문제는 중요하다. 시대에 따라 요구되어 지는 소양은 변하지만, 우선 근면을 美德으로 하고 자기 희생으로 公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는 일본인의 정신문화와 가치관을 교육의 장으로 회복시켰으면 한다.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6. 1>

● 삿포로 라면 전설 2

미소(일본 된장) 라면의 힌트는 부타지루(돼지된장국)

◇「삿포로 라면은 미소」라는 팬이 많다. 추운 겨울, 숙주나물을 듬뿍 얹은 미소 라면으로 몸을 덥히는 행복한 순간

미소 라면을 처음 생각해 낸 것이 「아지노산페이」가게의 고 오미야 모리토씨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55년 당시 오미야씨는 삿포로에 혼자 부임해 와 있는 단골손님들에게 돼지된장국을 서비스하고 있었다. 혼자 살면서 생활이 불규칙하고 된장국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프다며 돼지 된장국에 면을 넣어 달라는 손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자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었다. 그 후 타협하지 않고 맛의 연구를 계속한 오미야씨는 마침내 1961년 연말이 되어서야 겨우 가게 메뉴에 미소 라면을 내놓았다고 한다.

지금 삿포로는 라면 전국시대

◇ 시내에 1000곳도 넘는다고 하는 라면 가게. 당신은 무슨 맛?

스스키노 라면 골목 등 도심에 있는 정통파 삿포로 라면 가게들에 대항하여 연이어 새로운 가게들이 생기고 있다. 다누키코지 6초메의 신명소 「멘코이도리」와 니시쿠 등은 대격전지. 아사히카와계, 규슈 돈코쓰계, 중화면계, 하코다테 소금, 오비히로·쓰키가타·도베츠·후라노 등의 지방계, 쇠뼈계 등 군웅할거의 양상. 이 중에서 어떤 21세기의 신 전설이 탄생할지 흥미롭다.

기획 연재 - 삿포로(札幌) II

한일 양국간에 개최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민간경제위원회인『한일경제인회의』의 38회째 회의가 오는 5월 25일(목)~27일(토)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시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홋카이도지역의 관광명소를 비롯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홋카이도의 경제동향

남한과 유사한 면적(8.3만㎢)인 홋카이도는 OECD 회원국 기준 18위의 경제규모(GNP 2천억불)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식량공급기지와 관광지로서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사할린 유전개발 등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관계가 강화될 경우,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을 아우르는 북방경제 역세권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국-홋카이도 간의 연간 무역량은 약 5억불 수준이며 8개의 홋카이도 기업이 수산, 유통,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홋카이도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IT, BT등 신기술 분야와 홋카이도 주산업인 농업, 식품가공업, 관광산업 분야의 협력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증가중인 한국인 관광객의 홋카이도 방문에 상응하여 홋카이도 관광객의 한국 유치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홋카이도는 현재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지방자치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道州制의 모델 지역으로 선정되어 향후 자치단체로서의 독립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시로이 코이비또 파크(白い恋人パーク)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명과로 알려진 이시야 제과의 '시로이 코이비또(白い恋人 하얀 연인이라는 뜻-눈의 고장인 홋카이도를 상징한다)'는 1976년 발매된 이후, 계속해서 홋카이도 지역 한정판매를 고집하고 있는 특산품이다. 랑그드샤 사이에 화이트 초콜릿을 넣어 만든 이 과자가 유명해지면서 테마파크가 조성되었다.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한 초콜릿 팩토리, 중세 영국을 방불케 하는 튜더 하우스, 이시야 제과가 후원하는 프로축구단 콘사도레 삿포로의 컬렉션 하우스와 종합 축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초콜릿 제조과정을 견학할 수 있으며 과자를 직접 만들고 맛을 볼 수 있는 체험코스도 준비되어 있다. 일명 '삿포로 꼭두각시 시계탑'이라고 불리는 이곳의 시계탑에서는 매시 정각마다 홋카이도의 동물들을 본떠 만든 인형들이 카니발을 펼치고, 박물관에는 귀중한 앤티크 미술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으며, 연중무휴로 펼쳐지는 튜더 하우스의 아트루미에르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초콜릿을 매개로 한 양국의 교류와 우호친선을 기념하기 위해,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생산국으로 유명한 컬럼비아의 명예대사관도 이 안에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2005년도 국내외 10대 뉴스

「2005년 독자가 선택한 10대뉴스」(요미우리 신문)

1. JR 후쿠치야마선(福知山線) 탈선으로 107명 사망
2. 아이치(愛知) 박람회 개최
3. 노리노미야(紀宮) 공주, 결혼
4.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 압승
5. 내진강도(耐震强度) 위조사건
6. 아스베스토스(asbestos 석면) 관련死
7. 우정민영화(郵政民営化) 관련 법안 통과
8. 롯데, 31년만의 우승
9. 노구치(野口)씨, 우주유영 디스커버리호 수리 성공
10. 요코즈나(横綱) 아사쇼류(朝青龍) 사상최초의 7연패

「시사 통신이 선택한 10대뉴스」

1.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 압승, 우정민영화(郵政民営化) 법안 통과
2. JR 후쿠치야마선(福知山線) 탈선 사고로 107명 사망
3. 맨션 등의 내진강도(耐震强度) 조작 발각
4. 라이브도어, 라쿠텐(楽天)이 TV방송국 주식 대량 취득
5. 전국에서 아스베스토스(asbestos 석면) 재난
6. 도쿄증권 거래총액 버블 時 웃돌아, 시스템·오발주로 혼란야기
7. 아이치(愛知) 박람회 개최, 목표를 상회하는 입장자수
8.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로 韓·中과 갈등
9. 히로시마, 토치기(栃木)의 초등학생 여아 살해사건
10. 노리노미야(紀宮) 공주, 결혼

「2005년 해외 10대뉴스」

1. 런던 등 세계 각지에서 테러
2. 국제 원유가 상승, 한때는 70 달러 돌파
3. 조류독감,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맹위
4. 이라크에서 새 헌법안, 의회 선거 실시도 政情不安定
5. 대형 허리케인 미국 남부 강타
6. 파키스탄에서 대지진, 사망자 7만명 이상
7. 중국 각지에서 반일 데모, 대사관에도 투석
8. 중국, 위안화 절상
9. 로마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서거
10.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

會員 動靜

■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재계회의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제19차 한미재계회의 분과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제18차 한미재계회의의 총회 결의사항을 점검하고 양국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김희용(金熙勇)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 **설원봉(薛元鳳) 부회장**(대한제당 회장), **최용권(崔用權) 부회장**(삼환기업 회장)도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재계회의에서 몇 년에 걸쳐 제기해오던 한미 FTA의 조기 협상 개시 가능성과 이후 양국 산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월 1일 금호아시아나 빌딩 3층 문호아트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개장한 문호아트홀에 대해 문호는 고 박성용 명예회장의 호로 그를 기리기 위해 새롭게 210석 규모의 아트홀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생전의 박성용 명예회장은 예술을 사랑한 사람이라며 문호아트홀은 예술 영재들을 위한 공간으로 데뷔 무대, 기타 발표회 등을 활발히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 **호남석유화학**이 고부가가치 사업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1위 업체로 뛰어오르는 등 공격경영에 나서고 있다. **신동빈(辛東彬) 부회장**(롯데그룹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은 1월 31일 일본 미쓰비시레이온과 MMA 및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생산·판매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미국 미시간대 한국동문회(회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는 1월 17일 '2006년도 신년회' 모임을 갖고 차기 동문회장으로 **이운형(李運珩) 부회장**(세아제강 회장)을 선출했다.

■ **이길현(李吉鉉) 감사**(경원 회장)가 맡고 있는 제주관광협회는 1월 12일 오끼나와관광컨벤션뷰로와 우호친선협정을 체결했다. 양지역은 섬이라는 관광지의 특색을 살려 향후 정보교환과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양측의 관광 컨벤션사업의 발전을 도모키로 하였다.

<사무국 직통전화·이메일>

허남정 전무이사	njhuh@kjc.or.kr
유봉우 사무국장	02-3014-9833 bwryu@kjc.or.kr
조덕묘 차장	02-3014-9855 dmcho@kjc.or.kr
김정호 차장	02-3014-9866 jhkim@kjc.or.kr
심규진 과장	02-3014-9877 kjhim@kjc.or.kr
홍소영 직원	02-3014-9888 syhong@kjc.or.kr

☞ 2006년도 한일경제협회 주요사업 Calendar ☜

월	일 자	행 사 내 용	지 역
1	17(화)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사전회의 개최	서울 (협회 회의실)
2	9(화)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서울 (신라호텔)
	9(화)~13(월)	제6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파견	일본 도쿄
	20(월)	제25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 (신라호텔)
3		주한일본대사 주최 간담회 개최	서울 (일본대사관저)
4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서울 (송추C.C)
5	25(목)~27(토)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개최	삿포로 (르네상스호텔)
7		제1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일본 사가현
8		제7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유치	서울
9	19(화)~22(금)	제6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중국 日照市
		제75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서울 (송추C.C)
10	18(수)~21(토)	제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일본 후쿠이현
		제5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 개최	중국
11		제8회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
12		제76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주한일본특파원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개최	서울

短 信 ~ 단기체류 일본비자 필요 없다 ~

일본 정부는 2월 6일 지난해 3월 아이치 만국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영구화하기로 발표, 한국인 단기 체류자에 대한 일본 비자(입국사증)가 올 3월부터 영구 면제된다. 90일이내의 단기 체류, 즉 관광이나 사업상 방문, 그리고 일본 경유가 비자 없이 가능해졌다.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일본인 방문객에 대해 관광 및 통과 상용 목적 방한이면 비자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업, 이민, 90일이 넘어가는 어학연수 및 유학 등 목적으로 양국에 들어갈 때는 출국전 자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JAPAN FOOD TRADE FAIR IN KOREA(일본식품 전시회)

대한민국 여러분들에게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JAPAN FOOD TRADE FAIR IN KOREA의 개최를 맞이하게 되었기에 일본을 대표하여 인사말씀 드립니다.

이웃나라인 대한민국과는 오래전부터 사람과 문화의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작년은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우정의 해 2005」로 양국에서 다양한 교류사업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시기에,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농림수산물과 식품 등을 직접 소개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남북으로 긴 지형·풍부한 사계·바다와 산과 물로 혜택받은 국토를 활용하여, 지역의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 관계자의 노력에 의해, 최고의 고품질로 안전·안심할 수 있는 식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세계 제일의 장수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을 지탱하는 것이 「일본음식」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식료순수입국이지만, 지방에서는 세계적인 「일본음식」붐 등을 반영하여, 전국 각지에서 농림수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도 대단히 인기가 높은 찌개에 넣는 식재료인 명태에 관해서는, 신선도를 유지한 품질이 높은 일본산이 대한민국에서도 대단히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쿠시로산이라고 하면, 요리의 맛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에게도 브랜드로 확고한 위치를 확립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RICEXPO 2004에 출전했을 때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기회에 일본의 농림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마음껏 구경하시고 맛보시어, 「食」을 통한 한일교류가 진전하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교류의 기반은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관계이며, 이 관점에서 본 전시회를 계기로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까운 친구로서의 교류가 널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본농림수산성대신
中川 昭一 나까가와 쇼우이치

- 일 시 : 2006. 2. 15.(수) ~ 2. 17.(금) 〔3일간〕 10시 ~ 6시
- 장 소 : aT Center(농수산물 유통공사) B홀